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재호 강영성(신화순) 강준식(김정연B) 김기수 김정연A(이선분) 김종진(한안나) 김현욱 박승현 백성원(안지영)
석환기(이희순B) 서미영(박영식) 오영순 유현호(이영미) 유호근(손영화) 윤승한(민옥희) 이상희 이옥남 이종문
이창웅(김두순) 정경석(박지선) 정옥순 조규영(윤혜란) 채만기(장은주) 천세력(영명분) 최기훈(정계숙)
최정환(김미영) 홍정훈(김민지) 황영욱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제호(최지은) 김병율(이영숙) 김순옥(이한웅) 김대한 김현욱 박종삼(이명원) 박지순(정경석) 손명화(유호근)
송부현(김영진) 안지영(백성원) 유은자 윤승한(민옥희) 이경자(주경덕) 이근자 이난수(방원식) 이명희(문영원)
이미자 이종문 이한웅(김순옥) 이희순(B(석형기) 정옥순 최기훈(정계숙) 최봉순(서진화) 새 룰

♠ **감사헌금** 기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제호(최지은) 이필래 강영성(신하순) 김영업(손정아) 김병율(이영숙) 김수자 김순옥(이한웅) 김정연B(강준식)
김춘하 박부흥(최귀남) 박영식(성미영) 여은희 염영분(천세력) 오영순 유옥자(윤정호) 윤병호(양영옥)
윤정자(최성현) 이기자 이미자 이종문 전순봉 정영심 채명업(서시철) 최호자(김규찬) 무 명1 무 명2

 일천번제한금

[illegible]

♠ 월정헌금

주간 성경연구

5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누가복음 8장 26절 ~ 39절		
월요일	누가복음 8장 40절 ~ 56절	목요일	누가복음 9장 37절 ~ 50절
화요일	누가복음 9장 1절 ~ 17절	금요일	누가복음 9장 51절 ~ 62절
수요일	누가복음 9장 18절 ~ 36절	토요일	누가복음 10장 1절 ~ 16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준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제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욱 장영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대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 목 사	김제호			
	전 도 사	이필례			
	교육전도사	김선희			
찬 양 대	지 위 자	할 렐 루 야 : 김한나 호 산 나 : 김안나 시 온 에 덴 : 최원지 엔 젤 :			
	박 조 사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하유리 김미희 최유경		
		글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룙	김민지		
	솔 리 스트	김안나 정예슬			
선 교 사	파송선교사	태 국 : 김정숙 수 리 남 : 안석열 이성욱 미 국 : 김다니엘 미 국 : 최옥희	이 집 트 : 김신숙 A X 국 : 김해월 A X 국 : 이분옥 모 잠 비 크 : 홍두표 강순영		
		태 국 :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 김홍기	태 국 : 박경환 이순연		
	협력선교사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즐거운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동포시살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서울남노회 미래 자립위원회.				

2022. 01. 23.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요한일서 2장 28절 ~ 3장 10절

설교: 이진우 목사

성경은 극단적인 양극을 설명합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세상의 백성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다른 부류는 마귀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각각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의 자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특징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거부감과 예민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인이요, 너무도 거룩한 나머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세상도 거추장스러우며 살피도록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도들은 비슷한 형태의 죄들을 의지적으로 반복해 범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머리에 동자를 틀게 놔두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죄의 유혹은 새가 옵니다. 아마도 이 유혹은 세상의 사람들도 다 더욱 강하게 올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심지어 베드로도 역시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지속적으로 빠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며 다시 은혜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지를 굴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가 유혹에 굴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전한 의가 완성될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고 그날을 더욱 사모하며 죄와 묵묵히 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처럼 의와 사랑을 갈망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리스도께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신 것처럼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가꾸며 주님을 만나는 날을 고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에베소서 4장 21-24절 말씀을 통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 가는 구슬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빚으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여전히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와 싸우며 살고 있다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과연 참된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와 구원받는 믿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고 겸손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사”라고 했고, 시편 51편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 하시리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통회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에서 돌이킨 자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2. 마귀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이외의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에 속한 자들이라면 마귀의 자녀들은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요한은 육에 속한 자들의 특징으로 범죄를 지적합니다. 본문 6-8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 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 하였느니라 자녀들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다보면 **죄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태도로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론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선을 행하는 그들의 겉모습으로는 지극히 선하고 온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 숨은 동기를 살펴보면 스스로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속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죄 속에서 살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그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결코 죄 가운데 머물러 마귀의 자녀와 같이 행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에 속한 자처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오로지 마귀에게 속하여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 의롭고 거룩하게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죄를 지었던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아가던 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의롭게 살면서 아직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빛 진 자들의 미땅한 태도입니다.

SINCE 1975

No. 48 - 05

2022. 01. 30.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치료의 광선을 비추소서!” [말라기 4장 2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 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p>담 임 목 사</p> <p>Senior Pastor</p>	<p>이 진 우</p> <p>Yee, Jin Woo</p>
--	---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